

바디프랜드,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기업으로 성장할 것”

바디프랜드는 기술, 디자인,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 등 5가지 분야에서 경쟁사가 추격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든다는 ‘오감초격차’ 전략을 실천해왔다. 특히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넘어, 아프기 전에 라이프스타일의 관리로 건강수명을 늘려나가는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미션으로 삼아 의학과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디프랜드의 전략이다.

최근에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BODYFRIEND

의사가 만드는 마사지 체어, 연구개발에만 700억 원!

바디프랜드는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위해 최근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에만 약 700억 원을 투자했다. 연구개발은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메디컬R&D센터 등 3대 융합연구 조직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메디컬R&D센터’는 전문 의료진이 주축이 돼 안마의자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 중인 업계 유일의 R&D 조직이다. 메디컬 R&D센터에는 정형외과, 정신의학과, 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의를 포함해 뇌공학자,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등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상주해 연구개발하고 있다. 실제 특허 등록에 임상시험 입증까지 마친 ‘수면프로그램’을 비롯해 세계 최초 두뇌 피로 솔루션인 ‘브레인 마사지’, 아름다운 휴양지의 카타르시스를 공감각적으로 선사하는 ‘심상 마사지’ 등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기업을 꿈꾸다

작년 8월에는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메디컬에이아이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란셋 디지털 헬스(The Lancet Digital Health)’에 커버(표지)스토리로 게재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7만 건 이상의 심전도 데이터와 나이, 성별 등의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 채혈 없이도 빈혈의 진단과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연구개발의 결과는 헬스케어 업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 현재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총 2,914건을 출원했고 이 중 1,724건이 등록됐다. 또한 특허청에서 발간한 2019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 출원 수에서도 전체 1위에 오른 바 있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센서와 IoT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출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온몸을 밀착하는 안마의자의 특성을 살려 집에서 간편하게 생체신호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빅데이터를 AI 분석과 연계해 안마의자를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기업을 꿈꾸는 바디프랜드가 제시할 헬스케어 미래상이다.



(주)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박상현

바디프랜드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안마의자 부문에서 1위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디프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건강수명 10년 연장’이라는 굳건한 목표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오감초격차’를 추구하며 고객만족과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혁신 기술과 압도적 품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입지를 꾸준히 펼쳐나가는 바디프랜드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